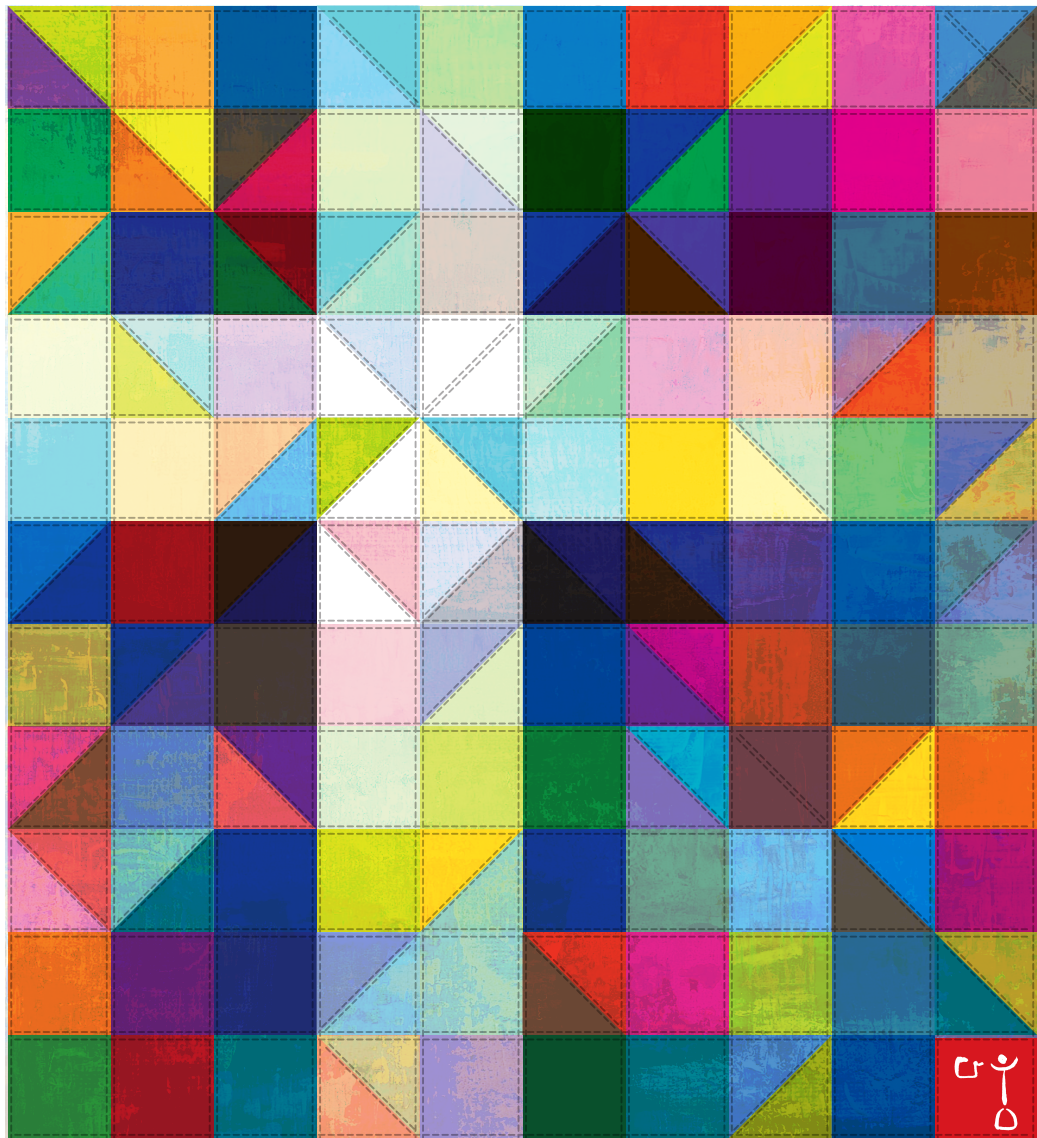


사랑은 은혜
사랑은 은혜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개포로 124길 7번지 (옛주소 : 일원동 625-29) 다움하우스
• 070-7591-2013 • cafe.daum.net/daumgrace
양승언 목사 • 010-9013-7836 • yenet@naver.com

다움교회
www.daoom.org



2014<봄>

조각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세워갈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헌신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소식지 조감보

우리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03 다음 발자취 | 살아온 은혜 살아갈 은혜

예배하는 공동체

- 04 다음의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입니다
- 06 로고 이야기 '너의 마음을 다 안다' - 김양현 집사
- 08 기도모임 '단비의 은혜' - 박원정 집사
- 09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 10 한 사람을 위한 예배
- 11 하나님은 예측 불허하시다
- 12 다음이라는 이름으로
- 13 미련하고 허술한 교회
- 14 가족특송 '아버지의 미소' - 나영미 집사
- 16 다음예배 '왜 홍시맛 인가?' - 정우의 형제

훈련하는 공동체

- 19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었을 뿐입니다
- 20 한 사람을 위한 다락방
- 21 '다시 첫발걸음' - 신원선 집사
- 22 '아버지를 만나다' - 이미경 집사
- 23 나에게 다음 청년대학부란 - 권영원 형제
- 24 '사뭇 다른 곳에서' - 김수연 학생
- 26 다음하우스를 오픈하며
- 28 다음하우스 '사포질' - 김보아 집사

증거하는 공동체

- 31 다음하우스 2호를 기대하며
- 32 캠페션 섬김을 시작하며
- 34 아이리 리싱의 편지
- 35 그녀의 모습 속에서 본 하나님 - 김미희 자매
- 36 여명학교 '벚꽃처럼 피어나길' - 양선주 권사
- 38 두리하나학교 '정성과 배려' - 이남주 집사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었을 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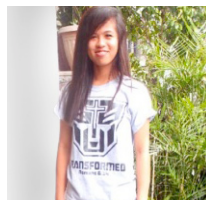


하나님을 위하여 | 예배하는 공동체

- 2013년 10월 13일 개척을 위한 첫 기도모임을 시작하다
- 2013년 10월 13일 ~ 11월 24일 7주간 기도모임을 진행하다
- 2013년 12월 1일 첫 주일예배를 중동고등학교 소강당에서 드리다
- 2013년 12월 8일 1부와 2부 예배를 나누어 드리다
- 2014년 4월 20일 창립예배를 중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드리다

교회를 위하여 | 훈련하는 공동체

- 2013년 12월 1일 첫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
- 2014년 1월 17~18일 첫 동계수련회를 다녀오다
- 2014년 2월 18일 첫 다움성경연구반(로마서 8장)을 시작하다
- 2014년 2월 18일~4월 7일 7주간 매주 화요일 오전, 저녁, 주일 저녁에 다움성경연구반이 진행되다
- 2014년 2월 18일 첫 여자다락방이 시작되다



세상을 위하여 | 증거하는 공동체

- 2013년 12월 1일 캠페인을 통해 필리핀 대학생 후원을 시작하다
- 2013년 1월 연탄은행 후원을 통해 불우이웃의 겨울나기를 돕다
- 2013년 2월 탈북청소년학교 2곳에서 식사봉사를 시작하다
- 2013년 4월 20일 지역아동을 위한 무료 영어도서관을 준비하다

다음의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입니다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이 땅에 왔습니다. 나의 부모님은 하인이었고 미용사였으며 경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시절, 나의 어머니는 슬퍼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는 털 헝겊, 실크, 방수 천, 부대 자루 등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조각 천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기운찬 손놀림과 튼튼한 끈으로 조각 천을 꿰매어 훌륭한 누비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나라는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여진 담요가 아닙니다.”
- 재시 책은 -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었던 질문은 “어디서”, “어떤” 교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개척을 하고자 결단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든 생각은 “함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재시 책슨의 말처럼 조각 천을 모아 만든 누비이불과 같은 공동체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워 갈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헌신 이 아닌,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깔의 천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백”을 가지고 개척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왜 나인가?”라는 질문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답은 “은혜”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때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오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도 이 길의 끝에서 만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이며, 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후 15:10)

이제 남은 여백을 함께 채워 갈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눌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가길 원합니다.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픈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원하는 기간 만큼, 원하는 방법으로 섬겨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만큼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순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로고 이야기 |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처음엔 목사님의 기도하는 현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붓을 잡았습니다.

어떤 모습이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모습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자신을 드리기로 한 기도자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무릎 꿇은 모습?

두손을 모으고 30도 쯤 상단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모습? 아니면 기도하는 손만 상징적으로 그럴까? ... 저의 머리속은 수많은 모습들로 혼돈스럽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보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머리로 만들어 내는 형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형상을 그려 보고 싶었습니다.

눈을 감고 한동안 묵상을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양승언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다시 붓을 들고 단 몇번의 크로스로 단순한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를 보며 예수님이 달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라고만 여태껏 생각해 왔었기에 더욱 그렸습니다.

기도자의 모습은 단 한 번의 붓질로 손끝에서 발끝까지 그려내야 하는 수묵이기에 수십 번 그린 끝에 좀 마른듯한 목사님을 닮은 기도자를 그렸습니다. 흡족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붓을 놓으려는데 십자가의 형상이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는 안 계실것 같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수백 개의 십자가를 다시 그리고 다시 또 다시 그렸습니다. 그런데 점점 십자가가 구부러지

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예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는 없어지고 매달리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스캔을 받아서 얼굴을 확대하고 보니, 고통으로 힘이 들어서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여 살아 계신 예수님의 발 아래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를 애뜻한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마치 “승언아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쳐다보시는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옆드려 기도하는 모습이 목사님에서 내 모습으로 바뀌면서, 날 위해 달리신 십자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룩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자신이 그린 그림 앞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을까? 절대로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성령의 은혜로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성령님만이 계신 사무실에서 마음껏 울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단지 양 목사님이 기뻐할 것이 오직 예수 뿐이라는 생각에 이 장면을 구상했지만 고려놓고 보니 저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그 모습도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곧 그 은혜를 잊게됩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눈 앞에 살아 계신 주님께 간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평생 변치 않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 때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눈길로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 그림으로 목상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 날 까지 이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 닮은 아름다운 다움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김양현 집사

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합니다.



기도모임 ‘단비의 은혜’

다음교회에 오기 약 1년전부터 남편의 제자 훈련 시작과 주일학교 봉사로 인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오가는 것이 육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교회의 어지러운 일들로 인해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실망감이 커지고 예배와 말씀에서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으니 점점 짜증만 늘어 갔고 남편과의 다툼도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적으로 점점 피폐해져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아이들 둘을 혼자 돌봐야하는 상황이 힘들어 예배를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또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잘 났다는 마음으로 집에서 쉬기를 죄책감없이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이 예배와 말씀에 은혜가 없으니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더욱더 힘들게만 느껴졌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하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양승언목사님께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을 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남편을 줄라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기도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가슴에 단비와 같은 은혜가 임했고 참으로 오랜만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다는 감동으로 인해 세번째 기도모임까지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봉사로 바빴던 남편이 매주 기도모임에 함께할 수 없어 혼자 아이들을 기도모임 장소에 데리고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도 신기하게도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기도모임에 가는 나 자신을 보며 은혜의 회복됨이 느껴졌고 갈급한 심정의 사람에게 예배다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양승언목사님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었던 사이인데 기도모임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런 큰 은혜까지 맛보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부정할수 없었습니다. 7주간의 기도모임을 무사히 끝내고 갈 곳도 특별한 계획도 뚜렷하지 않았던 우리다운 기도모임 가족들에게 놀라운 타이밍에 예배장소를 허락하시고 개척을 허락하시고 갈 곳 없고 마음이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먼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원정 집사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최근에 집사님 한 분과 만나 예배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가리는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들어와 앉으면 눈을 먼저 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강대상의 십자가조차 가리던 시절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인위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경험들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감격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를 맛보며 깊은 위로와 위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예배와 영적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지적, 정서적 경험들은 예배의 산물이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값진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산물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예배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의 현상이야말로 내가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보다 사람의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나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예배가 예배자의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될 때, 예배는 하나의 종교행사로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개인적으로 옥한흠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숨막힘을 종종 느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워서 목사님을 지켜본 바로는, 목사님 스스로가 먼저 예배자로 서고자 철저히 몸부림 치셨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조지 헛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죽어 있는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설교해 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산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자신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우리의 예배가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예배

예전에 좋아하는 목사님과 메일을 통해 개척을 시작하면서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동네 신발가게를 다녀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동네 시장에 신발가게가 생겨서 가 보았는데요, 아무리 작은 신발가게도 종류별로, 크기 별로 있을 건 다 있더군요.”

개척을 하면서 소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소박하게 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 준비할 것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 신발부터 어르신들 신발까지 크기 별로 준비해 놓은 작은 신발가게 아저씨의 심정을 이제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척 전에는 주일학교에 대한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하니, 어머니 손에 이끌려 온 아이들이 있었고 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에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린 후에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예배를 드려달라는 부탁에, 두 번째 예배부터 9시 30분에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2부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 광고도 제대로 안되었는데 누가 오려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간단히 기도모임형식으로 진행할까도 생각했지만, 단 한 명이 모여더라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드려 예배하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9시 30분 예배에 참석한 집사님 한 분에게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날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남편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반강제로 함께 간 거라 내심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다음 주에도 같이 예배 가기로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남편 분을 위해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척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감사한 것 중 하나는 내 안에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익히 듣고 말해왔던 한 사람 철학을 입이 아니라 삶으로 이야기하고,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날 신발가게에서 산 신발을 아이가 참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워질 공동체가 한 사람을 주목할 줄 아는, 한 사람을 위해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아는, 그래서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측 불허하시다

청년부 시절, “하나님은 ○○○○이다.”에 무엇을 넣을지 각자의 생각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저는 빈칸에 “예측 불허”를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늘 그렇게 인도해 오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예측 불허 하다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 초만해도 이맘때 교회 개척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개척을 위한 기도모임을 시작할 때만해도 너무 막막했습니다. 개척멤버도 없고, 모임장소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렇게 계획 없이 시작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연히 첫발을 내디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좇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 같습니다.

기도모임이 6주차까지 진행되어도 예배장소가 전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기도만 하고 계신 것 같다.”며 몇몇 집사님들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녔지만, 쉽게 장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주만 지나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집사님 한 분과 식사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중동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해 두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확실하게 만드시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저 “나를 믿으라”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숨기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때가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불확실해지는 현실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더욱 확실해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말입니다.

결국 불확실해 보이는 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해 보였던 개척 기도모임과 첫 예배를 통해 저 역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귀한 분들을 만나는 축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지 못했으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만한 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오랫동안 알려 지내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욱 깊게 만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우리 인생에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선택권이 많을 때는 복잡해지는데, 선택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내 인생에 나타나실 것이고, 언젠가 예측 불허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움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공모하면서 이런 인사말을 남긴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움 예배 참여하는 성도입니다. 교회 이름 공모합니다. ... 제가 개척교회 목사인양 잠시 즐거운 고민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구절의 “잠시 즐거운 고민을 했습니다.”는 표현에 마음이 많이 와 닿았습니다. 이번에 교회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한 마음으로 고민하는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디서 개척하느냐”와 “교회 이름이 무엇이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마음에 든 답변은 “함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워질 공동체가 한두 사람의 의지나 뜻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이가 태어나기 전 태명을 짓듯이, 교회 이름이 정해지기 전까지 “다움”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교회 이름을 공모하면서도 내심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 또 이런 과정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개척교회 목사인양 잠시 “즐거운 고민”을 했다는 메시지를 보며, 교회 이름을 함께 정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무엇으로 결정 되었느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모두가 개척교회 목사인양 함께 고민하며 애정을 갖고 교회를 세워간다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은 여러 분들이 공모해 주시고, 추천해 주신 “다움교회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좋은 이름도 많았는데, 그 동안 불렀던 이름에 애정을 많이 갖게 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교회 다운 교회, 그리스도인 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픈 바램이 그만큼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다움”이라는 이름에 부담이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름만 거창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서라도 우리 자신을 다듬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워질 공동체가 그 이름처럼 교회 다운 교회로 기억되고 불려지고 증거되길 함께 기도하며, 지금처럼 함께 세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살전 1:3~4)



미련하고 허술한 교회

우리교회는 예배시간에는 별도의 헌금시간이 없습니다. “개척교회인데 헌금시간이 있어야, 교회 재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염려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는 분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드리지 않도록, 그리고 헌금시간의 유무와 상관없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랬기에 별도의 헌금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관심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종이상자로 만든 헌금함이었습니다. 기존의 헌금함에 비해 너무 허술해 보이기에, 우려의 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가 밭 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조금은 “미련하고 허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감동을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래서 될까?” 싶을 정도의 미련하고 허술한 방법이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누구나 쉽게 가져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지만 누구나 가져다 놓을 때, 세상과 교회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척예배 때부터 주보에 재정을 공개할까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다만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 개척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심적 부담을 알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드리지 않고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정시스템을 갖춰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별도의 재정팀을 구성하여 재정은 운영하고 있으며, 교회 설립이 되기 전에, 그 동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 썼는지를 함께 돌아보고 감사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은 갖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헌금함을 나무로 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동안 정들었던 종이 헌금함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미련하고 허술한 공동체에 대한 꿈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함과 허술함,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만이 세상의 칭찬이 아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 특송 '아버지의 미소'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주말부부가 되었다.

아이들이 어려서 혼자 키우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았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감당하고 있었다.

올 해 초 여러 지체들의 중보의 결과로 남편은 다시 서울로 발령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미래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나에게 다음 교회의 특송 시간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자리임을 알게 되었고 가족 특송을 하자고 제의를 했다.

감사하게도 기뻐했다는 듯이 남편과 아이들은 흔쾌히 승낙을 했고 우리는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배워 평소에 즐겨 부르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이 곡을 정하고 틈나는대로 가사를 외우고 함

께 화음을 맞추며 연습을 했다.

차를 타서 이동 중에도 서로의 파트를 기억하며 연습했고 산책을 나가서도 우리는 연습에 또 연습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자기의 소원이 우리 가족이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날을 소망했는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다고 말하니 아이들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찬양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고 기뻐하며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흐뭇한 미소가 그려졌다.....

나는 청년부 시절 찬양팀을 섬겼고 남편은 오랫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하며 찬양으로 섬기는 것을 즐겨했다.

그런 부모를 둔 미래와 미리는 감사하게도 찬양의 은사를 물려 받아 우리집은 항상 찬양의 향기로 가득차 있다.



드디어 특송의 시간이 다가와 작은 떨림과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미래는 열정적으로 미리는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자기가 맡은 부분을 열심히 소화를 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실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부족한 우리 가족을 찬양의 도구로 삼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가족은 다음 특송을 준비하고 있다.

나영미 집사



다음예배 ‘왜 흥시맛인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보다 더 신앙심도 깊으시고 성경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니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마 주님께서서는 제가 30여년 이상 당신을 모르고 있는 채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려고 이번 다음교회 창립 예배에 저를 세우시는 것이 아닐까 믿으며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저는 30여년 전부터 주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초등학교 2~3년을 빼고는 성경 공부를 해 본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계시던 친척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그분께 드렸던 질문 하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디자인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 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께 뭔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자신감 넘치는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더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던 중 저는 당연히 그분이 교회를 다니실 거라 생각하고 그분께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교회는 잘 안 나간다고 주님은 우리 가슴에 계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분의 대답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착실히 교회를 다닐거라는 어린 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고 교회는 안 다녀도 가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분의 말씀은 너무나 생소하지만 멋지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웬지 모르게 그분의 생각에 백배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주님은 제 가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며 교회를 제가 가고 싶을 때만 나가는 속칭 ‘날라리(?)’ 신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는 잘 안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며 살았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 저를 사이비 신자라고 할 때 저 또한 그 분들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지 실제 삶은 크리스찬의 삶과는 멀다고 느끼며 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제가 다음교회에 나가시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서 그가 다니는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며 경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매주 주일 오전 저한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니지 않던 교회를 그것도 2시간이나 걸리면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네가 웬일이냐며 의아해하면서도 열심히 예배를 참석하는 저를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일었고 성경공부도 참여하면서 제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단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혹자는 저한테 묻습니다. 왜 가까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리 먼 다음교회를 다니냐고요? 그럼 저는 이리 대답합니다. 그냥 좋아서요라고. 물론 다음교회 예배 참석하는 이유를 이것저것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좋아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예전 방영했던 대장금에서 어린 장금이 가 고기를 씹을 때 흥시맛이 난다고 하니까 상궁이 왜 하필이면 흥시맛이냐고 물었을 때 그저 흥시맛이 나서 흥시맛이 난다고 했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지금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분들보다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앞으로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JOY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기서 JOY의 의미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쁨은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 즉 저를 마지막에 두었을 때 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곧고 올바른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익 형제



한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었을 뿐입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실제로 아주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산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저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밤, 저는 행복합니다.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은 이미 다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 마틴 루터 킹 -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저격 당하기 전날 밤, 멤피스에서 한 마지막 연설 중 일부입니다. 킹 목사는 평생을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정부는 킹 목사를 기념하는 날을 정해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존했을 당시에는 어떤 것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를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킹 목사, 당신이 애써서 뭐 하나라도 인종차별이 사라진 것이 있으면, 제발 말 좀 해 주시오!”

그럴 때마다 킹 목사는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없애온 차별은 오직 몇몇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차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률로 흑인들을 차별하지 못하

도록 막을 수는 있지만,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킹 목사가 싸웠던 곳은 법정이 아니라 인간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의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지만, 평생을 걸쳐 그가 한 일은 몇몇 사람들의 마음에서 선입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뿐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 일까요? 우리 주님은 엄청난 무리나 군중을 이끌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운동이나 조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에 남을만한 건물이나 기념비를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에 자신을 심었을 뿐입니다. 소수의 교육받지 못한 어부와 세리들의 마음에 복음과 진리를 심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유진 피터슨의 말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의 90퍼센트를 12명의 유대인에게 투자하여,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한 사람을 주목하길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가슴에 그리스도를 심기 위해 노력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주목할 수 있을 때, 우리 역시 킹 목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낙망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다락방



지난 주부터 여자 낮다락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매우 신실하신 분이라 제가 순장으로 섬겨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는 훈련을 받은 이후 개인사정으로 순장 사역은 미뤄오고 있었는데, 저의 부탁을 받고 흔쾌히 맡아주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로 구성된 사랑부 다락방을 섬겨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첫 다락방이 열리는 금요일 아침, 교회에 출근하다가 우연히 교회 근처에 사시는 자매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와 다락방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락방 모임에 관심을 보였고, 바로 다락방에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다락방은 잘 마쳤는지 궁금도 했는데, 순장 집사님께서 오후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다락방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저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첫 아이의 장애로 인해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임신 불안감이 컸습니다. 결국 이런 불안감을 가운데 다락방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고, 순장님과 순원들을 통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 그 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미뤄오던 순장 사역을 다음 교회에서 맡게 된 첫 날, 15년 저와 똑같은 모습의 자매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그 자매님 이십니다.

과거에 제가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자매를 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며 실감하는 하루였습니다. 15년 전 제가 임신 불안증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다락방 순장님과 순원들에게 받았던 위로와 사랑을, 이제 그 자매에게 돌려주고자 합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 드립니다.”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을 아침에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분이 느끼는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순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 동안 미뤄왔던 순장을 새롭게 시작한 첫날 사역해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세워 갈 다음의 다락방이 날마다 이런 생명이 넘치는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이미경 집사

'다시 첫발걸음'

다음교회에서 다락방을 시작한지 벌써 2달 여가 됩니다. 제가 다락방을 시작한지는 벌써 8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모여서 성경 공부하며 교제를 나눈다는 게 어떤 때는 부담으로 느껴지는 철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다락방을 통해 끊임없이 이루어지시며 위로해 주심을 알기에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작년에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너무나도 힘들게 마음 고생하면서도 다락방만큼은 빠지지 않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복잡한 심정으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다음교회에 오게 되었고, 다시 다락방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첫발걸음은 두렵고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다락방 식구들의 처지를 잘 이해해주실 수 있는 순장님을 만나 첫 날부터 많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오래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면서 겪었던 정신적 스트레스와 마음 고생도 35년 동안 섬기셨던 교회를 떠나신 순장님을 보며 위로를 받고, 자식을 키우면서 어찌해야할 바를 모를 때에는 서로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다락방에는 때로는 선생님, 선배님, 언니, 친구, 동생, 기도의 동역자의 역할을 잘 나누어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문제에 굴복하여 힘들어 하기보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락방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지난해에 겪었던 상처를 치유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수선했던 믿음생활의 거처도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락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는 주일예배의 소중함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날씨도 아름답고, 다락방 안에서의 교제도, 주일예배도, 다음 하우스에서의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모두 다 아름답게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만하니 작은 것에 연연해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귀한 존재가 됨을 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하나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깨닫고 귀한 존재로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자라 하나님께서 흠족해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여야겠다는 소망입니다.

끊임없이 다락방을 통하여 교제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신원선 집사

'아버지를 만나다'

저는 1년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 할 즈음 저는 살아생전 아버지께 무심했던 스스로에 대해 너무 힘들어 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 곁에 보내 드리고 솔직히 교회의 공동체가 너무 부담 스러워 그저 나 혼자 조용히 교회만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저는 수많은 종교인들 중 하나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너무도 갑자기 다음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이끈건 제 의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그리 부담스러워하던 공동체 안에서 가장 편안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엄마 품 안에서 느끼는 편안함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함은 제 의지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제가 너무도 부담스러워 엄두도내지 않던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목사님과 한두, 두주 공부하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곳으로 나를 이끈 것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에 너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를 택하셨다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며 목사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한 순간 제 마음과 눈을 열리게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워 그날 밤 저도 모르게 주님께 감사의 기도가 흘러 나왔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공부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목사님 말씀에 제 귀가 열리고 제 맘이 열렸다는 것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시인하고 감사하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리 사랑하시어 저를 이곳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다음교회를 알게 하시고 성경공부를 허락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알고 하나님이 왜 저를 자녀 삼았는지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 인자하시고 섬세한 아버지가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저는 육신의 아버지는 잃었지만 제안에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음을 오늘도 감사 드립니다. 또 바라기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소중한 시간이 더 많이 저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경 집사

나에게 다음 대학청년부란

대학청년부 모임을 시작한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모임을 하면서 감사한 점을 꼽자면 좋은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는 리더 민집사님을 만나게 되어 참 좋습니다.

대학청년부 식구라면 누구에게도 멘토가 되어주신답니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직장인까지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양한 모습만큼 나눌 수 있는 것도 많겠지요. 조만간 첫 MT(5월 10일 예정)도 계획되어 있어서 설렙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분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기 힘든 영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격려도 하며 서로가 서로를 선한 길로 이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기에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한 점을 꼽자면 유익한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매주 2부 예배가 끝난 뒤 1시부터 3시까지의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치열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도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한집사님을 초빙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게는 많은 도전이 되었고,

가슴도 뜨거워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대학청년부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직접 D형 QT에 대하여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어떻게 성경을 읽어나가고 삶에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다음 대학청년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유익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곳에서 우리 모두가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오랜만에 맞이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다음 대학청년부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음 교회를 기뻐하시고 축복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권영원 형제

주일학교 ‘사뭇 다른 곳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잠신중학교 2학년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선생님께서 간증을 하라 하셨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딱히 할 말도 없고 신앙얘기는 웬지 낯간지러워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런 저를 보시고 선생님께서 다음 교회에 와서 느낀 바들을 솔직히 얘기해 보라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오게 된 다음 교회 첫날 아침, 저희 가족은 교회가 아닌 중동고등학교에 있습니다. 번듯한 예배실도 없이 복도 한 구석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속으로 ‘예게? 이게 뭐야? 예배 같지도 않네...’란 속말이 저

절로 나왔습니다. 여지껏 생각했던 주일학교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도 없이 집사님이 나와 말씀 전하시고 유치원, 초등 아이들은 서로 장난치고 돌아다니고 서로 알지 못해 서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람 몇 명이 모여 만든 모임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다. 그러나 이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점차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말로 애 쓰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시작기도부터 찬양 말씀 그룹인도까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느라 이마에 땀이 송긋 맺힌 선생님들을 보며 어린 마음에 안쓰러운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다. 모든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마디라도 건네 주고자 애 쓰시는 모습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수련회를 간다는 말이 나왔을때 잘 모르는 아이들과 떠나는 수련회를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일단 가보고 주일학교에 대한 너의 마음을 결정하라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약간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에 썰렁한 분위기, 약간 엉성해 보이는 일정들, 어린 친구들과 함께하는 게임들이 좀 유치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재미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맛있는 식사와 간식은 어느 수련회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바는 다른 친구들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기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익숙한 분위기의 주일학교에서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서 느끼는 어색한 감정들을 어린 친구들, 또래, 언니 오빠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때부터 동지애가 발동한 것인지 나도 모르게 함께 있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따라 오게 된 교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주일예배에 계속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점차 어린 친구들이 장난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언니 오빠들 눈치 보면서 살짝살짝 떠드는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 귀엽기도 했습니다. “언니 언니” 하며 따르는 동생들이 생겼고 학교생활에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 주는 언니 오빠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찬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옆에서 장난치는데 말이죠. 들킬까봐 알아차리지 못하게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찬양의 가사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 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밤 기도회도 아니고 왜 내가 찬양하면서 우는지... 이런 상황에서도 눈물이 난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부모님께 했더니 부모님께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건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있는 곳이 더 중요하단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주일학교가 좋아졌고, 앞으로 주일학교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친구들과 함께 다음 주일학교를 더욱더 은혜로운 장소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하며 이상으로 간증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학교 화팅!!

김수연 학생

다움하우스를 오픈하며



작년 10월 개척을 위한 첫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예배처소는 물론, 기도 모임 장소도 정해지지 않아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11월 말에 예배처소가 확정되었고, 12월 1일부터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교제와 교육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느껴 조그만 장소(지상 1층 30평, 지하1층 40평)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와 비유와 상징이 100가지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모임 공간을 마련하다 보면, 자칫하면 공간에 우리의 관심이 빼앗기기 쉬운데, 우리의 관심과 우선순위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게 늘 맞춰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크게 세 가지(하나님과 교회, 세상)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움하우스가 이 세 가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부합하는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마련할 공간은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우고 섬기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셋째로 조금은 좁고 불편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보다는 흠여지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교회 공간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세상이 아닌, 나와 우리에게 맞추어지기 쉽기 때문입니



다.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추구할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해 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넷째로 공간이 아니라 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을 마련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맞볼 수 있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한 마음을 주심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관심과 수고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채워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자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이나 주중에 편하게 오셔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시거나, 교제나 여러 모임을 위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공간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이곳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다움하우스 ‘사포질’

다움교회를 위한 일곱 번의 준비기도회가 끝나고 중동고에서의 예배가 드리지면서 교회집사님들께서 분주해지셨다. 여러 번 일원동 일대를 오가며 찾던 중 작년 12월 24일에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움하우스를 허락해 주셨다.

그 때만 해도 그 공간을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다움하우스를 준비하며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며 공유한 시간들이 아닐까...만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그래서 조금 어색하기도 했었던 집사님들과 2주간을 동고동락하며 오픈날까지 최선을 다했던 순간들은 아마 다시 경험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운 축복된 순간들이었다.

개척교회의 교인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을까? 아님 세속화로 찌든 교회로부터의 탈출 직후여서 그랬을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겠다고 나이 생각 못하고 최대한 기증품을 모으고 중고제품을 리폼(Reform)하여 사용하기로 원칙을 세워 착하다 착한 집사님들과 목사님, 간사님까지도 중노동의 세계로 밀어 넣고 말았었다. 그런데 참 이상했던 건 그 안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불편함으로 인한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었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은혜였다. 특별히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밖에 없었던 많은 부분들을 말없이 채워 주셨던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들로 매일매일 감사 또 감사였다.

여기저기서 모여든 기증품들을 보며 과연 이 물건들로 어떻게 조화롭게 이 공간을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었다.

먼저 질은 나무색의 가구를 밝은 색으로 칠하기 위해서는 결이 매우 거친 사포를 이용해서 길면은 모두 갈아 내야 했다. 대충해서는 나중에 새로운 칠이 잘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사포질을 해야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해졌다.

사포질을 너무 많이 한 날은 팔이 끊어지는 듯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팔에 파스로 도배를 하고 나서야 겨우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서도 제소라는 재료로 밑작업을 해 주고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최소한 두 번 이상씩은 칠을 해 주어야 했다. 또 의자좌판의 조화를 위해 동대문에서 천을 사다가 씌우는 작업까지... 쉽지 않은 공정이었다. 모든 것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다.

“사람도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쩐 다움이라는 공동체도 이런 모습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닐까 싶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황과 여건에 머물다가 어느 날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공동체...다움이라는 이름처럼 살고 싶어서 세상보다 못한 교회의 모습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어떻게든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여 모인 공동체,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하지만 우리의 이



러한 소망은 주님에 대한 전적 의탁이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드러 옛 모습을 벗겨 내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내맡겨만 가능한...그래야 언젠가 우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하나님 그려 가시는 아름다운 그림의 한 부분씩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비록 그 첫 단계가 자아가 깨어지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엄마, 예배 드리고 다움하우스에 가지요?” 이제 다움하우스는 다움교회 성도님들이 편하게 와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공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을 쌓아 가는 곳이 되었다.

처음에 우리는 단지 교회의 사무실 정도만을 생각하고 공간을 찾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공간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 이제 다움하우스 2호로 지역 사회를 위한 영어도서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동일한 아니 더 큰 유익을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

그러나 그 그림이 너무 희미하다. 다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드러야 한다.

어쩌면 더 많은 것을 드러야 할지 모르겠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벌써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건 언젠가 보게 될 하나님께서 그리실 아름다운 그림 때문이 아닐까?

김보아 집사



다움하우스 2호를 기대하며...

“오늘날 선량한 사람 스무 명을 찾아 최고의 미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그 중 열아홉은 ‘비이기심’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면 거의 대부분은 ‘사랑’이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소극적인 용어가 적극적인 용어를 대체했습니다.”
- C. S. 루이스 -

요즘 재정 투명성이 좋은 교회의 기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현실 교회가 재정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것입니다. 다만 루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소극적인 용어가 적극적인 용어를 대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당연히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해야겠지만, 재정을 얼마나 귀한 일에 사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개혁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적극적인 면에서 고민하였습니다. 모든 교회 사역이 그렇듯이, 교회재정 역시 교회의 존재이유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공동체,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 재정 역시 이 세 가지 목적에 부합하도록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개혁부터 세운 원칙이 있다면, 예배를 위한 장소 임대료만큼은 매달 구제, 선교를 위해 지출하는 것입니다. 개척초기라 재정적으로 불안정했지만, 첫 예배부터 이 원칙에 따라 컴패

션 후원을 비롯해서 여러 정기, 비정기 섬김과 나눔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 원칙을 지속할지 모르지만, 가능한 이 원칙을 지켜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제와 양육을 위한 다움하우스를 마련하고 마음에 짐이 있었습니다. 교회 자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했는데, 세상을 위한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에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고, 다움하우스 2호는 지역주민을 위한 〈영어도서관〉을 작지만 세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초등 학생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와서 편히 책도 보고 교제도 나눌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전파의 문도 열고 지역사회문화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선교적일 때만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 속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 지역사회에 보내신 선교적 사명이 분명 있을 것이며, 어렵지만 세워지는 순간부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실 교회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비이기심”이나 “투명성” 등 소극적인 용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지만, “사랑”과 “신뢰” 등 적극적인 용어로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کمپەیشن 섬김을 시작하며...

교회는 선교적일 때만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사명 속에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교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کمپەیشن을 통해 대학생들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월 4~5만원대에서 후원이 가능하지만, 대학생의 경우는 월 35만원을 후원해야 하기 때문에 후원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후원하게 되게 된 학생은 필리핀 대학생으로 건축학을 전공하는 아이리 리싱이라는 학생입니다.

필리핀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필리핀의 다음세대를 세워 가는 사명을 주신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컸습니다. 한사람 철학을 가지고 기도하며 후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강당을 빌리는 장소 임대료만큼은 매달 구제, 선교비 항목으로 지출하기로 성도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부분의 재정을 아껴서라도 이 부분은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가난할 때 돕지 못하면 부자가 되어도 돕지 못할 것 같은 마음도 컸고, 교회는 선교적일 때만 교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눔...

다음의 나눔이야기



아이리 리싱의 편지



모두 축복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제 이름은 <아이리 텔라 페나 리싱>이고 18살이에요. 제 생일은 1995년 8월 21일이에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고 건축학 학부 전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림에 대한 재능을 주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제 전공에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전공을 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시작할지 결정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로 여쭙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 주시고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해야 할지 길을 보여 주셨어요. 색칠, 스케치, 노래 부르기, 기타 연주는 제 삶의 일부예요. 저의 이 취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정말 멋진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한양 예배팀의 일원이 되는 것도 저에겐 정말 축복이에요.

이곳에서는 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줘요.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 하시는지 보여 주시기 위해 저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제게도 축복의 도구예요.

나사렛 세계 청년회 (NYI)의 리더와 위원회 일원으로서,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돕는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일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끌어 나갔을 때 정말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답니다
제가 이 모든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멋진 가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저희를 학교에 보내시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최고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하시는 최고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저에게 이런 부모님이 계셔서 아주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행복해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끈끈해지고 함께 든든히 자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는 분이세요. 후원자님과 같은 분을 만나 건 저에게도, 우리 가족에도 아주 멋진 축복이에요.

전 세계의 많은 LDP 학생들 중 저를 후원하기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려요.

‘그녀의 모습속에서 본 하나님’

필리핀에 살고 있는 아이리와 몇 번의 편지를 주고 받으며, 되려 제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여지는 모습이 넉넉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 감사하며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18세 소녀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세 살 때부터 여러 후원자님과 인연이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그녀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아이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이 분명하게 다가 왔습니다.

건축학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신 방향과 비전, 그림과 음악적 재능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의 감사 고백, 믿음 공동체의 리더와 일원으로서의 섬김, 가족을 향한 소망 등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아이리의 모습은 큰 기대 없이 시작했던 아이리와의 나눔에서 제게 찾아온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나의 삶 속에서 명확하지 않는 것이 상대의 모습에서는 조금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아이리의 삶의 곳곳을 주님께서 보살피고 계심이 제게도 느껴졌습니다. 아이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당차기도 하면서 순수해서 제게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됐고, 나의 현실의 문제에 간혀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해 낙망하고 있는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리는 매일매일의 여정을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자세가 제게 도전이 됩니다. 특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짐이 사라진다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아이리 덕분에 저도 찬양을 틈틈이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제 삶의 작은 변화로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아이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와 아이리 가족은 다음교회와의 새로운 인연을 맺은 것에 기쁨과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길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어 주신 만남을 통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저 또한 감사합니다.

다음교회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전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리 학생을 향한 지도와 관심을 계속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김미희 자매

탈북청소년학교 여명학교 ‘벚꽃처럼 피어나길’

먼저 여명학교에 가서 급식 봉사를 하게 인
도하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보에 탈북 학교 급식 봉사에 관한 광고가 나
갔는데 감사하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18명쯤
되는 분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점심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이라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두 팀
으로 나누다 보니 두리하나학교 외에 여명학
교에도 매달 첫 번째 목요일에 봉사를 하게 되
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주부들이 음식 재료를 준비
해서 거의 100인분에 가까운 식사를 준비하
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니다.

음식 재료의 양을 정하는 일과 좋은 재료를
보다 싸게 구입하는 일과 운반, 보관하는 일,
학교가 남산 케이블카 타는 곳 근처에 있기 때
문에 10시반 까지 도착하려면(다행히 점심시
간이 12시 40분부터이다)걸어 올라가기엔 벅
찬 곳이라서 명동역에서 카풀을 해서 가야하
는 일...등 실수를 하게 되면 점심 식사에 차
질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습
니다. 보통 7~8명이 봉사를 하는데, 첫날 학
교 선생님들이 수업에 모두 들어갔는지 아무
도 부역으로 와서 우리를 지도하는 분이 없었
는데도 모두들 마치 자신들의 집 부엌인 것처
럼 필요한 것들을 척척 찾아서 일을 하기 시
작했습니다. 누구는 어떤 일을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을 찾아서 어찌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감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가스렌지가
좁고, 화력이 약해서 많은 음식을 하기엔 역
부족인데 모두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놀라

운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여럿이 의논을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아 즐거웠습니다.

식재료 운반을 위해서 차를 갖고 온 어느 집
사님은 경사가 심하고 좁은 지하 공간에 주차
를 하다가 차가 많이 굽혀 속이 많이 상했을텐
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해
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식당은 따로 없어서 부엌 옆의 큰 방을 보통
때는 수업을 하고, 점심에는 상을 펴 놓고 밥
을 먹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우리를 소개하고 감사 인
사를 하고, 배식을 하며, 선생님들도 모두 오
셔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학생들 식
사가 거의 끝나면 점심을 먹고, 설거지와 바
닥 청소를 하고 수저와 행주를 삶아 널고 나면
비로소 한숨을 돌립니다.

이번 주 남산은 벚꽃이 유난히 예뻐했습니다.
일을 다 끝낸 후에 부엌 뒷문을 열고 나가서
아랫집 마당에 핀 벚꽃을 내려다보면서 종이
컵에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인듯 하였습니
다. 막 시작된 우리의 작은 섬김과 더불어 남
산 자락을 보며 마시게 될 달달한 커피
한잔은 제 추억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로 기록
되어 나갈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
서는 잡힐까봐 무서워서 못 살겠고, 천신만
고 끝에 남한에 온 그들은 이곳에서 사는 방

식 모든 것이 낯설어 겁나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들이 돌고 돌아 온 이 나라가 낯설고 겁난 곳이 아니라 남산 산등성이 벚꽃처럼 그들의 꿈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곳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들의 구구절절한 상처와 눈물을 다 닦아 줄 수는 없지만 따뜻하고 맛있는 밥 한 끼가 아이들의 마음을 녹여 건강하게 잘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쩌면 땅 끝일지도 모를 그곳을 조금이나마 섬기게 되어서 주님의 애통에 동참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선주 권사



탈북청소년학교 두리하나학교 ‘정성과 배려’

매월 넷째주 수요일은 방배동에 있는 두리하나학교 식사봉사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두리하나학교는 초.중.고에 해당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팀 봉사자는 11명이지만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은 빠지고 7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돈가스와 감자 양배추 옥수수를 넣은 샐러드와 겔leti김치, 된장국입니다. 하루 전날 시장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할 때 집사님 한 분은 맛있는 고기를 구입하러 집에서 먼 곳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힘든 짐도 마다 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고 오신 집사님 덕분에 그날 돈가스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집사님들의 재빠른 손놀림으로 순식간에 재료들이 음식으로 변하고, 기름솥 앞에 서있는 두분의 손놀림 때문에 하나도 타지않고 노르스를 맛있게 튀겨지는 돈가스 한켠에서는 더 맛있게 먹고 싶어 모양을 내 가면서 가지런히 썰어 접시에 담아 내는 집사님, 그 곁에서 샐러드와 소스를 끼얹은 접시를 식탁에 날라상차림을 하는 집사님들 모두가 사랑과 정성이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12시가 되니 오전수업이 끝난 아이들이 한꺼번에 들어와 순식간에 식당에 가득했습니다. 배식할 때 어느 아이가 이 음식 더 있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가 자기가 조금 더 먹고 싶는데 혹시 이것이 다이면 뒤에 오는 아이들 먹을 것이 모자랄까 싶어 그러다는 말을 듣고 뒷사람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어찌

나 낫설고도 어여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히 음식을 보이는 데 두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게 하여야겠다고 아이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것을 보며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하는 집사님들 손길은 바빠졌습니다. 그날은 생일을 맞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주인공앞에는 케이크가 있었고 모두 모인 가운데 생일 축하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잘 먹었다는 인사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여 정리하고는 각자 다음 수업 장소로 향하였습니다. 식사가 끝난 식당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봉사자이신 선생님을 따라 K팝스타 춤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춤을 배우면서 동작이 안되어 속스러워 하더니 우리의 설거지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열심히 잘 따라하였습니다. 문화적인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듯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학교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판청을 부리거나 말썽을 피우고 떠들고 장난을 심하게 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배려하며 서로 협동하여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 등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난달 식사 봉사 때 어느 집사님이 한 아이에게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어 봐서 정한 돈가스 메뉴이었기에 이번에도 집사님 한 분이 다음에는 무엇이 먹고 싶냐고 물으니 망설이다 불고기요라고 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식사를 해 주는데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라 뛰고 나면 배고파한다고 남은

음식두고 가라고 하여 넉넉히 준비하여 넣어 두고 왔습니다. 아마도 저녁걱정은 덜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리하나학교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뭔지 모르게 지금 우리의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지 모르게 마음이 잔해 왔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점심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의 마음을 채워 줄 수 있는 사랑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 곳에서의 봉사는 돕는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것을 작은 거 하나라도 기꺼이 나누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겉모습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두리하나학교 청소년들이 그동안 이곳에 오기까지 생겼을 상처들이 우리의 나눔으로 치유되고 사랑으로 회복되어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서 앞으로 통일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남주 집사



두리하나국제학교
DURIANA INTERNATIONAL SCHOOL